

만찬생략, 휴대폰 내놓고 외부단절 ‘비장한 5시간’

# “롯데 두 날개 꺾였다… 과거 버리고 새 판짜라” 辛의 질책

〈유통·화학〉

롯데, 2020 상반기 VCM

사장단·BU·임원 등 100여명 참석

신 회장 “적당주의의 젖어선 안돼  
직원들에 변화의지 심어줘야”



지난 15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주재로 그룹 차원의 VCM이 열렸다. VCM에 참석하고 있는 이갑 롯데 면세점 대표(왼쪽부터), 하석주 롯데건설 대표, 이석환 롯데자이언츠 대표.

여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젊은 리더들을 전진 배치한 것”이라며 이 자리에 모인 대표이사들에게 빠르게 대응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신동빈 회장은 모든 사업 부문의 수익성과 미래 성장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기반한 자원 배분과 투자를 진행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시대에 뒤떨어진 부분이 있다면 전략 재검토를 빠르게 진행하는 한편, 미래를 위한 투자는 과감하게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 회장은 “여러운 환경 속에서도 위축되지 말고 미래를 위해 적극적으로 도전해 달라”며 대표이사들에 대한 당부를 마무리했다.

한편 롯데는 2018년부터 매년 상반기 VCM은 모든 계열사가 모여 그룹의 새해 목표 및 중장기 성장전략을 공유하는 자리로, 하반기 VCM은 사업군별로 모여 각 사 현안 및 중기 전략을 발표하고 향후 성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2020 상반기 VCM에서는 2020년 경제 전망, 2019년 그룹 사 성과 리뷰 및 중기 계획 등이 공유되었다. 또한 롯데의 DT(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추진하고 있는 주요 계열사의 실무 임원들이 함께 모여 롯데 DT 추진의 현주소와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토크콘서트도 마련됐다.

/박인웅 기자 parkiu7854@metroseoul.co.kr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